

JULY 2021 VOL.633

#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7월의 필수템  
**SPECIAL** 불쾌지수 낮추는 뷰티팁

**BODY** 활력가득한 몸 만들기

AMOREPACIFIC



- 02 **NEWS**  
7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빈티지 메이크업
- 08 **MAKEUP**  
지워지지 않는 프루프 메이크업
- 14 **SPECIAL**  
블랙지수 낮추는 뷰티 팁
- 22 **PRODUCT**  
7월의 필수템
- 28 **MAKEUP PLAY**  
새로운 립 메이크업
- 32 **PRODUCT** 설화수
- 34 **PRODUCT** 아모레퍼시픽
- 36 **PRODUCT** 바이탈뷰티

- 38 **PRODUCT**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 42 **INGREDIENT**  
항산화 폭탄, 토코페롤
- 44 **ICON**  
7월의 인물 인터뷰
- 48 **BODY**  
활력 가득한 몸 만들기
- 50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꼼꼼 리뷰
- 52 **PLACE**  
국내에서 즐기는 폴빌라
- 54 **ESSAY**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56 **EDITOR'S PICK** 7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1년 7월 1일  
 발행 통권 633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콘텐츠&서비스팀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항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SINCE 1958**  
 〈항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33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HYANGJANG JOURNAL

BOLD CUTOUT : 이글거리는 열기가 온몸을 휘감는 계절. 트렌디하면서 고풍적이고 절제된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적 노출, 컷아웃 디테일은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다.

editor LEE MI KYUNG

어느새 다가온 뜨겁고 찬란한 여름, 노출의 계절을 앞두고 가장 자신 있는 부위를 먼저 골라야 할 듯하다. 2021 S/S 패션 트렌드 중 1990년대 풍 레트로 무드와 함께 떠오른 컷아웃 디테일이기 때문이다. 매년 볼여름이면 컷아웃이 자유롭게 활용되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많은 디자이너가 클리비지, 허리, 등까지 곳곳에 컷아웃을 다채롭게 적용한 옷을 대거 선보이면서 더욱 다양한 스타일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아한 롱 드레스나 스커트에 허벅지까지 깊이 슬릿을 내 노출도 우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샤넬, 살바토레 페라가모, 돌체 앤 가바나, 스포트막스, 마르코 람발디 등부터 옆구리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 치골이 드러나도록 한 가브리엘라 허스트, 펜디, 겐조, MSGM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가슴이 드러날듯 아슬아슬하게 파인 빅토리아 베컴, 등을 시원하게 드러낸 백리스 스타일을 선보인 막스마라나 지방시까지 아찔하면서도 시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즐비하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낸 듯한 컷아웃 룩은 폭염에 맞서 체온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관능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만약 컷아웃 룩이 처음이거나 과감한 컷아웃 디테일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에트로나 필로소피, 아크네 스튜디오처럼 여러 벌을 레이어드 해 입는 것도 썩 괜찮은 방법. 딱 달라붙는 이너 웨어에 컷아웃이 많이 되어 있는 니트를 같이 입거나 양쪽 허리 부분을 잘라낸 원피스를 셔츠나 블라우스와 레이어드해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슬림해 보이면서 트렌디한 컷아웃 디테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컷아웃 디테일을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레이스를 더해 슬더 라인의 컷아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크뷔스의 드레스를 참고하길 권한다. 이 외에 가브리엘라 허스트나 에르메스, 펜디 등에서 시도한 엑스(X) 자 형태의 컷아웃이 돋보이는 옷 역시 여름철 과감하게 활용하기 좋다.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패션에 완벽한 풀 메이크업을 더하는 건 오히려 식상하다. 가벼운 피부 메이크업과 블러셔로 생기를 약간 더하거나 레드 립으로 마무리해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할 것. 컷아웃 룩을 당당하게 즐기고 싶다면 무엇보다 빠져나온 옆구리 살, 두툼한 허벅지, 늘어진 배살과 작별을 고할 다이어트가 먼저! 





**이 시대의 홈 가드너를 위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홈 가드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시대이니만큼 가드닝의 재미를 더해줄 소소한 물건들을 소개한다. 노르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르켓의 화병과 화기는 테라코타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디자인을 단순화해 일상의 물건들과 조화롭게 어울린다. 지속 가능한 소재와 우수한 질, 빼어난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든 좋은 물건들로 풍요롭고 자연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길.

문의 아르켓(www.arket.com, 02-767-2233)



**유패 발랄한 스타일로 추억을 소환하다**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인 컬렉션으로 늘 패션계에 화제를 몰고 오는 모스키노가 이번에는 엘모, 쿠키 몬스터, 빅 버드, 오스카 더 그루치, 그루버, 버트 앤 어니 등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세서미 스트리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레미 스캇이 재해석한 세서미 스트리트 컬렉션은 캐릭터의 팝 컬러를 더해 모스키노만의 상징성이 돋보이는 과감하고 재치 있는 디자인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 의류 외에도 휴대폰 케이스, 토트백, 미니 숄더백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모스키노 코리아(02-2118-6072)

**MY OWN TRAVEL BAG**



**개성 있는 여행자를 위한 트래블 러기지**

리모와가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액세서리로 유명한 브랜드 카오스와 협업해 탄생시킨 새 컬렉션은 리모와의 독일 공학 기술과 카오스의 대담한 디자인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리모와 에센셜 캐빈의 유광 폴리카보네이트 방식 슈트케이스 겉면에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듯한 그래픽으로 카오스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를 담았다. 색상은 옐로와 화이트, 캔터스 그린과 블랙 두 가지 조합으로 선보인다. 손잡이와 지퍼, 배지, 휠 하우징까지 모든 요소의 컬러를 세심하게 맞춰 깔끔한 외관을 완성했다. 지구본을 양각한 디자인에 리모와와 카오스의 이름을 함께 새긴 가죽 태그, 스티커도 유쾌한 감성을 더한다.

문의 리모와(www.rimowa.com)



**반다나의 서정적 변주**

여름 하면 떠오르는 패션 소품 중 하나인 반다나. 최근 반다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크네 스튜디오의 제품을 스웨덴 사진작가 안데르스 에드 스트룀이 사진으로 담았다. 블루, 그린, 퍼플, 베이지 계열로 다양하게 변형한 페이즐리 패턴을 활용해 실용적인 동시에 스타일의 포인트가 되는 스카프는 스톡홀름 인근 해역의 스타브수다섬에 위치한 작가의 별장과 인근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문의 아크네 스튜디오(02-542-2290)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친화적 스포츠웨어**

최근 패션계와 뷰티계의 최대 화두는 지속 가능하며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스포츠웨어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뉴트럴 컬러와 편안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룰루레몬의 '얼스 다이(Earth Dye)' 컬렉션은 오렌지, 비트 등 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합성염료를 이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물, 탄소, 화학물질 사용량이 적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염색 기법을 사용했다. 흙, 모래, 바위 등 자연의 색감과 텍스처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색감과 몸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소재, 편안한 핏과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실로 묶어 염색하는 타이다이닝 기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패턴을 만들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문의 룰루레몬(www.lululemon.co.kr)



**한여름의 맛**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여름 디저트를 고른다면 단연 빙수가 아닐까!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로비라운지 카페 '갤러리'에서 우유 얼음 위에 우리 전통 간식인 곶감, 떡, 밤, 말린 대추 등을 올린 전통 빙수와 잘 익은 생망고를 올린 망고 빙수, 고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있는 1인용 코코넛 빙수를 만날 수 있다. 통유리창 너머 보이는 높은 하늘과 탁 트인 도심 전망은 덤이다. 그런가 하면 파크 하얏트 서울 호텔 24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는 허니 골드, 홍시, 체리, 팥 빙수 등의 다채로운 빙수를 만날 수 있다. 유기농 우유를 활용한 빙수로 미세하고 고운 얼음이 입 안에서 녹듯 사라지는 것이 특징. 특별 에디션으로 새싹 보리와 유기농 우유 얼음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넣은 보타닉 망고 빙수도 선보인다. 문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02-797-1234), 파크 하얏트 서울(02-2016-1205)



ERDEM



FENDI



DOLLE & GABBANA

# 레트로 열풍이 몰고 온 빈티지 메이크업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사진을 보듯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빈티지 스타일. 그 독보적인 매력은 메이크업에서도 유효하다.

editor LEE MI KYUNG



BLUMARINE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 PA+++ 15gX2, 7만5천원.



ALBERTA FERRETTI



ISABEL MARANT



헤라 센슈얼 스파이스 누드 밤 #218 칠리 토피/ #305 카시스, 각각 3.5g, 3만5천원.



DOLCE & GABBANA

의 젤 타입 블러셔와 립 제품으로 번진 듯 부드러운 장미빛 뺨과 입술을 표현하면 완성된다. 알베르타 페레티와 로다테 쇼의 모델들처럼 양 볼을 물들인 듯 관자놀이까지 넓게 번진 치크 메이크업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밝은 핑크 컬러로 얼굴을 상기된 듯 연출한 것.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도드라지지 않는 자연스러움, 경계를 최대한 흐릿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치크 메이크업은 크림 타입 제품을 스펀지로 조금씩 두드려 발라 완성하면 된다. 사용 전 스펀지에 미스트를 1~2회 분사하면 얼굴에 좀 더 잘 스며든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보습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립밤을 발라 입술을 매끄럽고 촉촉하게 해주면 입술색이 더욱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된다. 타고난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도톰한 입술로 연출해주는 헤라의 센슈얼 스파이스 누드 밤은 맑은 발색이 돋보이는 볼드 립밤으로 입술 본연의 볼륨감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며 밝고 투명한 광택을 더해주어 룩의 완성도를 손쉽게 높일 수 있다. **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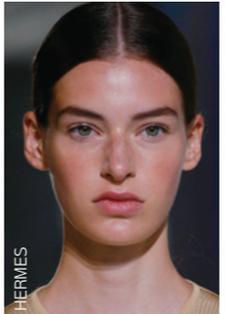
번진 듯 흐릿한 컬러로 로맨틱 무드를 극대화한 알베르타 페레티, 반투명한 보잉 선글라스를 쓴 블루마린과 펜디, 1980년대 주택 정원 한가운데로 소환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로다테 컬렉션에 등장한 모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강력한 레트로, 빈티지 무드의 메이크업이다. 이번 아니라 돌체 앤 가바나, 에트로, 이자벨 마랑, 아크네 스튜디오 등 내로라하는 브랜드의 봄/여름 컬렉션 백스테이지 역시 은은한 컬러를 가볍게 터치해 완성한 아름다운 룩으로 가득했다. 마치 물을 한 방울 섞은 듯 수채화를 닮은 메이크업. 빛바랜 듯 은은하게 들린 핑크 컬러로 완성한 메이크업은 우아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을 더해준다.

보라 악수, 스포트막스, 빅토리아 토머스 등의 이번 시즌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의 얼굴을 보면 투명한 베어 메이크업 트렌드를 이어가듯 본래 피부가 비칠 만큼 투명하다. 극도로 얇고 가벼운 피부 화장에 빛바래고 번진 듯한 컬러를 자연스럽게 더해 빈티지한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고 맑은 컬러와 섬세한 텍스처가 얼굴 위에서 흐릿하게 퍼진 듯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는 것. 가볍고 미세하게 커버되는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은 피부를 깨끗하고 매끈하게 정돈해주어 투명한 느낌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최적의 아이템이다. 쿠션로 피부 결점을 감쪽같이 가리고 피부를 깨끗하게 정돈한 후 그 위에 은은한 컬러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MIN YOUNG, KIM SA YOUNG(레플)



ALBERTA FERRETTI



HERMES



ACNE STUDIOS

# 여름 이야기

뜨거운 여름을 즐기는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땀과 습기, 물과 열기에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여름 메이크업 팁을 전수한다.

photographer KIM HEE JUNE

editor CHOI HYANG JIN



## SUMMER SMOKY

물이나 땀에 번질까 두려워 아이 메이크업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 강력한 워터프루프 제품이 당신의 메이크업을 지켜줄 것이다. 헤라 세도 듀오 #11 원성의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도통하게 발라 응영을 살린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 블랙으로 정막을 메우듯 아이라인을 그리고, 헤라 리치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크라 #79 래쉬 블랙을 등백 바르면 꿀 먼봉이나 티슈로 눈가의 유분을 가볍게 닦아내면 아이 메이크업이 더 오래간다. 입술에는 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43 번트 선셋을 바른다.



### SUN-KISSED

오직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브론즈 메이크업. 휴양지에 다녀온 듯 건강하게 그은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자신의 피부보다 한 톤 어두운 컬러의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얼굴 광대뼈를 감싸듯 바른다. 콧잔등과 헤어라인에 살짝 터치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태닝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눈에는 헤라 섀도 듀오 #10 얼루어링과 #02 이지고잉을 섞어 바르고,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458 레이지 누하를 발라 마무리한다.



### BARE FACE

어떤 환경에도 절대 번지지 않는 메이크업의 비법은? 바로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 선풍수 퍼펙팅 베일 베이스 01호 핑클 베이지를 얇게 발라 피부를 깨끗하게 정돈한 뒤 선풍수 퍼펙팅 쿠션을 살짝 덧발라 완벽하면서도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눈에는 헤라 섀도 듀오 #05 클래식 중 베이스 컬러만 가볍게 발라 음영을 살리고, 헤라 리치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79 래쉬 블랙을 바른다. 입술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429 네이키드 아몬드를 얇게 바르면 끝.



### STRAWBERRY SYRUP

메이크업마저 답답하게 느껴지는 여름. 메이크업이 피부에 녹아내리거나 얼룩지는 일을 방지하고 청량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소개한다.  
헤라 블랙 쿠션을 뺨과 이마 중앙에 살짝 바르고 퍼프를 이용해 얼굴 중앙과 외곽으로 퍼뜨리며 피부에 밀착시킨다.  
입술에 헤라 센슈얼 프레쉬 nude 틴트 #138 베티를 바르고, 뺨에도 살짝 터치해 블러셔로 활용한다. 색이 자연스럽게 물들면서 윤기를 입혀 딸기 시럽처럼 상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 네임을 한 번 더 덧발라 투명감을 더한다.



MODEL: CHOIARA,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JAKE LIM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 피부 블래지수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연일 짜증이 도를 더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치기 쉬운 환경에서도 피부만은 방긋 웃게 해줄, 여름철 피부 블래지수 낮추는 비법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KIM HEE JUNE(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 #1 상쾌한 텍스처로 환승하기

여름철에 끈적하거나 묵직한 스킨케어 제품을 고수하다 보면 피지와 땀이 뒤엉켜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스킨케어 단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 일시적으로 피부 표면은 건조한 반면 피지량은 폭발하는, 일명 수부지 피부로 변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자외선과 땀,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줄 수분 케어가 제격이다. 피부 속에 침투한 열에너지가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로 바뀌며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름 개선 성분을 첨가한 제품을 쓰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젤 타입 제품을 선택하는 것. 모공 속까지 말끔하게 클렌징한 뒤 진정 성분을 포함한 무알코올 토너로 닦고, 젤 타입 제품으로 마무리하면 이상적이다.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  
로터스 추출물 등 천연 유래 보습 성분으로 피부에 청량한 수분 에너지를 불어넣고, 피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수분 충전 젤 크림. 100ml, 8만5천원(리미티드).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수딩 젤 크림  
외부 환경에 자극받아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리페어 해주는 제품. 바르자마자 피부 온도를 7.8℃ 낮춰준다. 100ml, 5만9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그린티의 생명력으로 뿌리는 순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거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는 제품. 미세하고 고르게 분사되어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뿌려도 된다. 200ml, 12만원.

## #2 열 받은 피부 진정시키기

피부의 정상 온도는 31℃ 정도. 그런데 뜨거운 여름 직사광선 아래 15분만 서 있으면 피부 온도가 41~43℃까지 급상승한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열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차가운 물로 세안하거나 에어컨에 얼굴을 들이치는 행동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금물이다. 손수건이나 거즈를 시원한 물에 적셔 얼굴을 닦거나 수분 미스트를 뿌려 피부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부의 열을 내려주는 스킨케어 제품을 골라 쓰는 것도 효과적이네. 알코올이 든 제품은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출 수는 있으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다면 수분 케어 제품을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손바닥에 크림을 덜어 체온에 녹여 바른 뒤 손바닥으로 지그시 감싸면 보습에 도움이 된다.



### #3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 도전하기

마스크가 생활화되면서 떠오른 트렌드 중 하나가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다. 더운 여름날 오후, 마스크 속 파운데이션을 바른 피부가 찝찝하게 느껴진다면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민낯을 예쁘게 보정해줄 메이크업 베이스다. 피부 톤을 밝혀주는 자외선 차단제나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고르게 보정해줄 메이크업 베이스가 이상적이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피부 보호막이 하나 사라지는 셈이므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1. 설화수 상백크림 2호 밀키톤업 SPF50+/PA++++ 열과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를 화사하게 만드는 톤업 효과가 8시간 동안 지속된다. 끈적이지 않는 산뜻한 텍스처가 특징. 50ml, 8만5천원.
2. 헤라 매직스타터 3호 민트 SPF25/PA++ 피부에 조명을 비추 것처럼 투명한 광채를 더하고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제품. 붉은 기를 가라앉혀 안색을 깨끗하게 보정해준다. 35ml, 4만7천원.



### #4 풍선처럼 가벼운 쿠션 골라 쓰기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 제아무리 유행한다고 해도 파운데이션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피부를 가볍게 감싸주는 쿠션이 적당하다. 퍼프로 두드려 바르는 쿠션은 밀착력이 뛰어나 쉽게 묻어나거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질이나 모공이 두드러지는 기분이 든다면 퍼프로 팡팡 두드리듯 발라보길. 메이크업을 마친 뒤 티슈를 얼굴에 대고 가볍게 눌렀다 떼어내거나 파우더를 덧바르면 번들거리거나 마스크에 묻지 않는다. 퍼프는 한 번 쓰면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티슈로 닦아 보관하고, 3일에 한 번씩 깨끗이 빨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1. 헤라 블랙 쿠션 SPF34/PA+++ 뭉침 없이 가볍게 발리면서, 얇지만 강력하게 피부에 밀착되는 레이어리스 매트 쿠션. 24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에도 만족스러운 피부 표현을 유지한다. 15g×2, 6만원.
2.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피부에 얇게 퍼 발리고 물들 듯 밀착되는 고커버 텍스처가 바르는 즉시 기미, 잡티는 물론 모공, 미세주름까지 가려 결점 없이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15g×2, 7만5천원.

### #5 마스크 점검하기

고온 다습한 마스크 속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에는 마스크를 매일 바꿔 써야 하는데, 자외선을 반사해 눈 부근에 기미나 주름을 야기할 수 있는 흰색보다는 검은색 마스크가 바람직하다. 또 마스크가 압박하는 코와 볼 위쪽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나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찰로 인해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혈관이 확장되며 색소침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쿠션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덧바를 것.

## #6 한여름 밤의 꿈을 위한 나이트 리추얼

낮 동안 바짝 메마른 피부를 위해서는 특별한 나이트 케어가 필요하다. 양이 늘어난 피지 때문에 커진 모공을 조이고, 깨진 유·수분 밸런스로 인한 자극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 이럴 때 마스크가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냉장고에 보관한 시트 마스크를 쓰면 모공을 조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재생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슬리핑 마스크를 쓰면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피부가 메말랐다고 영양분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것은 금물. 피부 위를 걸도는 유분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돌 수 있다.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했다면 토너에 적신 화장솜을 여러 장 얼굴에 올려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화수 여윤팩 답답하지 않은 보습막을 형성해 자는 동안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윤기가 돌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되돌려준다.  
120ml, 5만8천원.

## #7 숙면을 위해 노력하기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에는 계절성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수면 초기에 체온이 약간 떨어지며 온몸이 이완되어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는데, 실내 온도가 높으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없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에어컨을 켜거나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는 내내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돌아가며 체온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도록 1~2시간 작동하게 타이머를 설정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가볍게 산책하고 낮에 10~15분 낮잠을 자거나 잔잔한 파도 소리나 빗소리 등이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앱을 켜둔 채 잠을 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8 바디 피부도 편안하게

여름철 매일 두세 번씩 비누로 샤워를 하고 끈적한 느낌이 싫어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다.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미지근한 물로 발끝부터 시작해 몸 전체를 적시고, 부드러운 목욕용 스펀지나 타월에 바디 클렌저를 5백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덜어 거품을 충분히 낸 뒤 온몸을 씻어내길 권한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온도가 잠깐 내려가는 효과는 있지만,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서 열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워질 수 있으므로 금물. 샤워 후에는 보습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끈적이지 않는 바디로션을 충분히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1. 헤라 벨벳 나이트 퍼프드 샤워 젤 생기있는 은방울꽃과 아이리사가 전하는 매력적인 향기의 플로럴 오리엔탈 향의 샤워 젤. 270ml, 4만7천원.
2. 헤라 벨벳 나이트 퍼프드 바디로션 메마른 피부를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퍼프드 바디로션. 250ml, 5만원.

MODEL: SEO YU JIN, MAKEUP: LEE YOON SUN, JAKE LIM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SET STYLING: YOO YEO JUNG

# 서머 뷰티 솔루션

산뜻하고 감각적으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뷰티 아이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Sulwhasoo

UV WISE  
BRIGHTENING  
MULTI PROTECTOR  
CREAMY  
GLOW

SPF50+/PA++++  
ANTI-POLLUTION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50ml, 8만5천원.

#브라이트닝선크림  
#3중안티폴루션  
#저자극여름필수스킨케어

##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자외선은 물론 도시의 유해 환경과 각종 외부 자극에 맞서 피부를 지키고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유지해주는 선크림. 건조한 피부에도 부드럽게 밀착되는 촉촉한 텍스처로 자극 없이 순하고 산뜻하게 발린다. 설화수만의 선키어 포뮬러 상백단™이 자외선과 열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어 무더운 여름철 외출할 때 바르기에 제격이다. 피부 톤을 고르고 밝게 보정해주고 미백 효과를 발휘해 바를수록 피부가 밝고 화사해진다.

설화수 순행클렌징오일, 400ml, 7만원.  
설화수 순행클렌징폼, 400ml, 6만2천원.

#마일드딥클렌징  
#당기지않는촉촉함  
#안티폴루션서머클렌징



Sulwhasoo

GENTLE CLEANSING OIL  
HUILLE NETTOYANTE  
DOUCEUR

Sulwhasoo

GENTLE CLEANSING FOAM  
MOUSSE NETTOYANTE  
DOUCEUR

## 설화수 순행클렌징오일 & 순행클렌징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외부 자극 요인으로 온종일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세정해주는 촉촉한 저자극 클렌저. 한정으로 출시된 대용량 순행클렌징오일 & 폼은 일반 PET 대비 탄소 배출을 20% 줄일 수 있는 BIO-PET를 적용했다. 워터 젤 타입의 순행클렌징폼은 풍성한 거품으로 민감한 피부도 순하고 편안하게 씻어내주며 산뜻한 질감의 순행클렌징오일은 메이크업과 노폐물은 물론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세정력이 강력한 순행클렌징오일로 1차 클렌징을 하고 순행클렌징폼으로 마무리하면 더욱 효과적인 클렌징이 가능하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워터. 150ml, 5만5천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에멀전. 120ml, 6만원.

#탱탱한피부탄력  
#력서리흠에스테틱  
#안티에이징스페셜리스트



###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워터 & 에멀전

과일 AHA 성분이 피부의 딱딱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다음 단계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스킨과 3중 아미노산, BX 펩타이드가 사슬처럼 배합되어 피부를 탄탄하게 채워주며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에멀전으로 구성된 탄력 케어 듀오.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인 BX 펩타이드, 인체와 유사한 99% 리얼 콜라겐, 피부 재생 효과를 발휘하는 쌀 EGF 등 탄력 개선 성분이 피부를 맑고 쫄득하게 가꿔주며 탱탱한 탄력감을 선사한다.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125ml, 4만2천원.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 110ml, 3만8천원.

#피부에너지리부팅  
#데일리안티에이징  
#산뜻보송한마무리



###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 에멀전

타우린과 카페인 이 피부장벽을 보호하고 케라티네이즈가 피부의 길을 열어 펜타-파워 콤플렉스™ 성분을 더욱 깊숙히 침투시켜 보다 맑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라인.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은 피부 에너지대사를 리부팅해주고 피부장벽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케라티네이즈 성분이 남성 피부의 각질 관리에 도움을 주어 유효성분이 피부에 더욱 효과적으로 침투해 건강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준다.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은 강력한 보습 효과와 함께 유분과 번들거림을 케어해주는 가볍고 부드러운 사용감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15g×2, 12만원.

#안티에이징세럼쿠션  
#다이아몬드광채피부  
#럭셔리글로우쿠션



###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안티에이징 세럼을 고스란히 담은 고영양 크리미 텍스처로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고 편안하게 밀착되는 쿠션. 미세한 입자의 다이아몬드 파우더와 커버 파우더 입자를 윤기로 코팅한 글로우 코팅 파우더를 함유해 고급스럽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 17년간 22만 8천 회의 실험을 거쳐 찾아낸 궁극의 안티에이징 성분인 AbsoluTea™와 가을 다원에 피어나는 녹차꽃 추출물, 봄철 단 20일만 수확할 수 있는 첫물 녹차를 담은 녹차수 등 고귀한 그린티 원료를 함유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구말 파리 유니버스 트리오 세트, 10ml×3, 8만 9천 원.

#3향3색  
#매일다른향기  
#휴대용퍼퓸



### 구말 파리 유니버스 트리오 세트

구말 파리의 베스트셀러 3종으로 구성해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향수 세트. 스위트 플로럴 계열의 사랑스러운 향기가 일품인 뽀뜨뽀 쉬리, 매혹적이고 세련된 그녀를 위한 우아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담은 페뉴 드 스와레, 화려하고 관능적인 향기가 오래 지속되며 신비로운 여운을 남기는 에뚜알 뉘뉘가 미니 사이즈로 담겨 있어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매력적인 향을 뽐낼 수 있다. 



## 2 컬러 4 메이크업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의 새로운 컬러 카시스와 칠리 토피.

단 2가지 컬러로 4가지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립스틱 200% 활용 팁을 전한다.

### LOOK 1. SINGLE LAYER

청순하면서도 생기가 도는 가벼운 데일리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05 카시스를 한 겹만 얇게 발라보라. 틴트 위에 립글로스를 바른 듯 투명한 광택과 물들인 듯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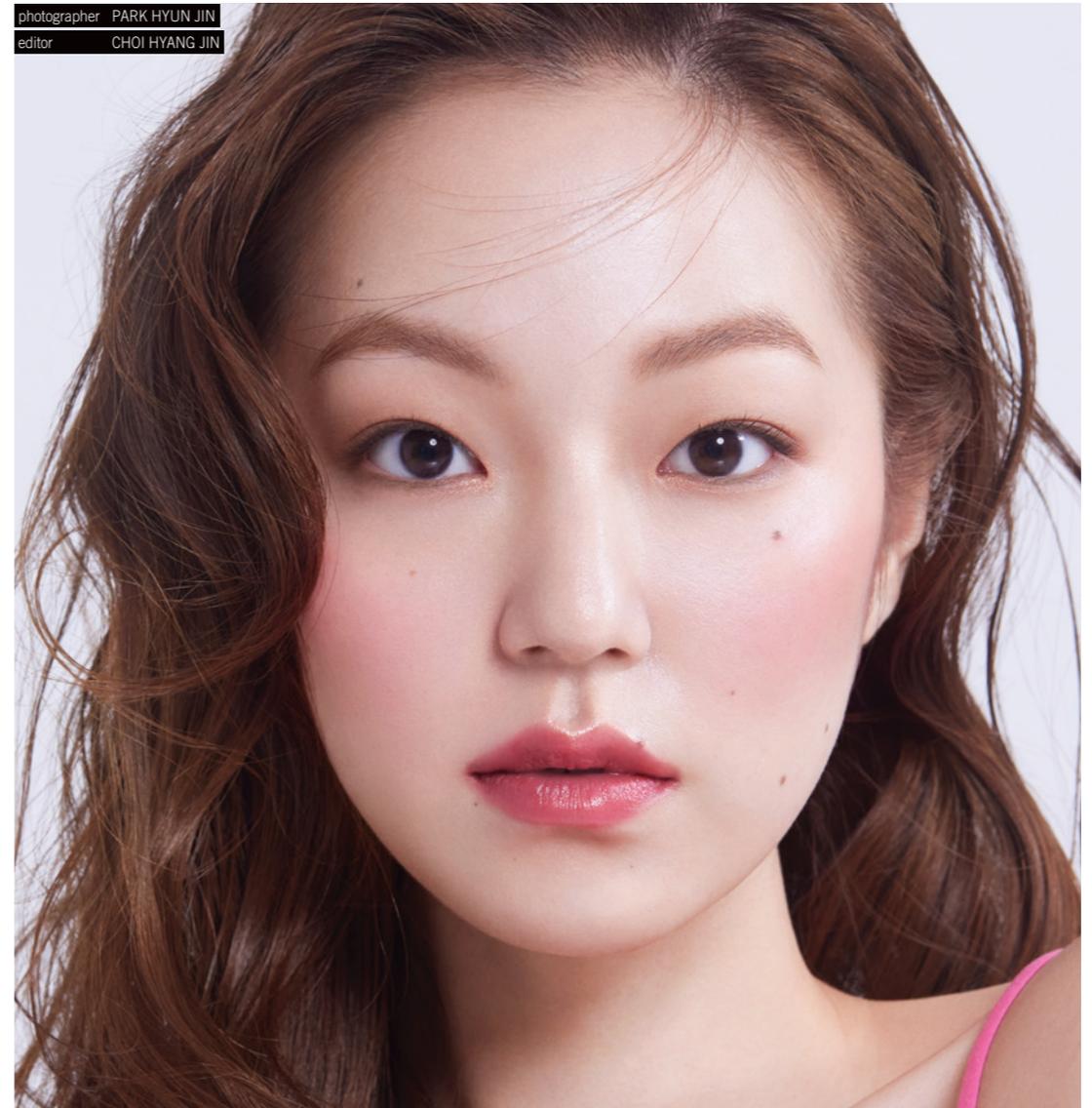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 8.5g, 6만원.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05 카시스, 3.5g, 3만5천원.

**FACE**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를 가볍게 터치하고, 그 위에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면 탄탄한 베이스가 완성된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중 베이스 컬러를 아이홀에 발라 음영을 표현한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05 카시스를 한 겹 발라 컬러를 은은하게 물들인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 LOOK 2. DOUBLE LAYER

선명한 아이 메이크업에 맞춰 좀 더 진한 컬러감을 원한다면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05 카시스를 두 번 이상 덧발라 원하는 농도로 연출한다. 텍스처가 가볍고 뭉치지 않아 여러 번 덧발라도 답답하지 않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05 카시스, 3.5g, 3만5천원.

**FACE**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른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으로 기본 음영을 연출하고 #04 피키 중 포인트 컬러를 언더 래쉬 라인 끝부분에 발라 눈에 깊이감을 더한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05 카시스를 두세 번 얇게 덧바르고 외곽은 브러쉬로 가볍게 퍼뜨린다.



### LOOK 3. SMUDGED LIP LINE

시어하게 발색하는 립스틱은 입술 선을 부드럽게 스머징해 발라야 한다. 입술이 얇아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보다 살짝 두껍게 바른 뒤 면봉이나 브러쉬를 이용해 입술 선을 부드럽게 퍼뜨리는 것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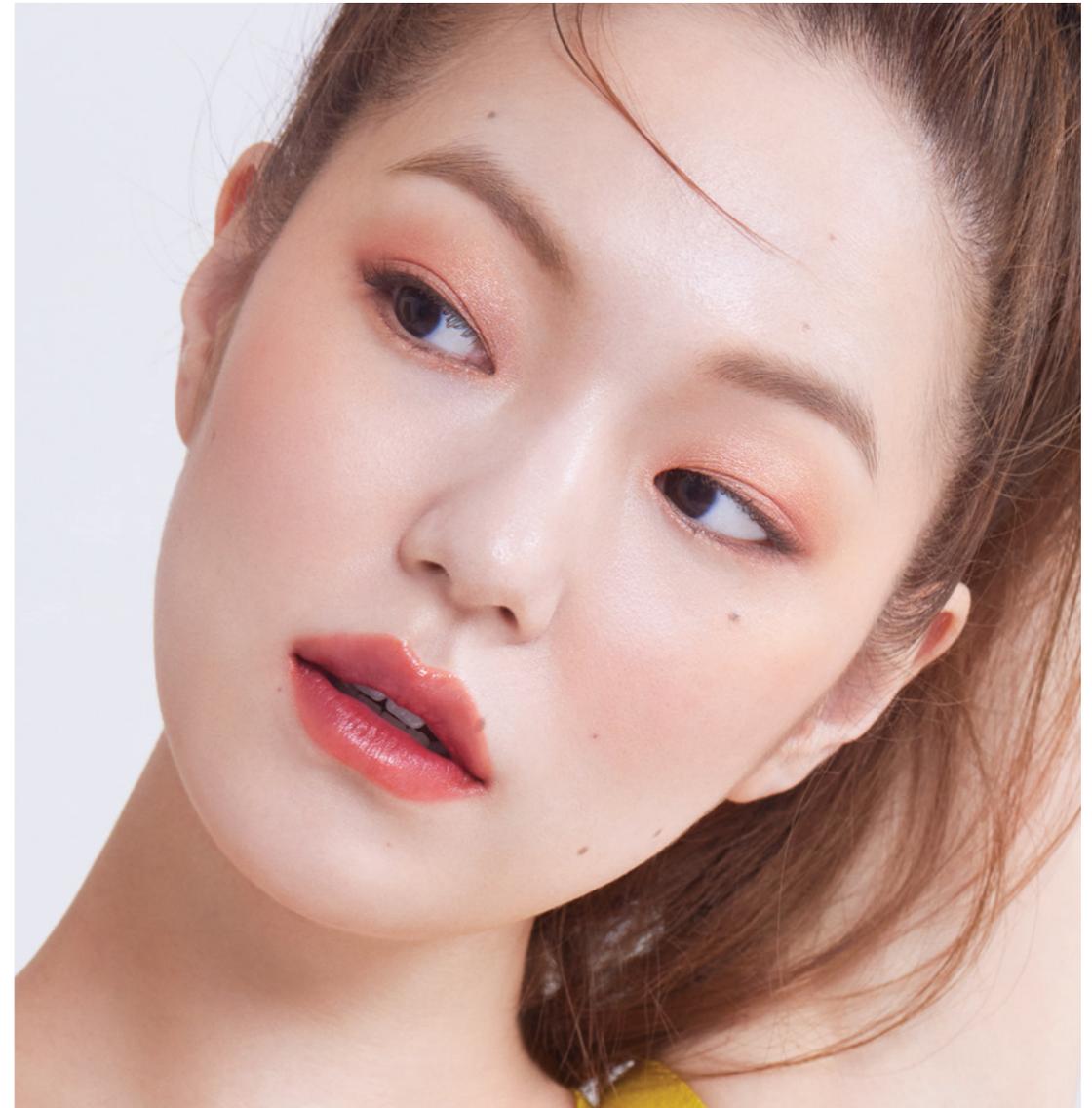


헤라 블랙 쿠션 SPF34/PA++, 15g×2, 6만원.  
헤라 섀도 듀오, #04 피키,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18 칠리 토피, 3.5g, 3만5천원.

**FACE** 헤라 블랙 쿠션을 얼굴에 가볍게 펴 발라 얇지만 완벽한 피부 화장을 완성한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04 피키의 베이스 컬러를 아이홀에 얇게 펴 발라 상큼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18 칠리 토피를 입술에 바르고 면봉이나 브러쉬로 경계를 흐트러뜨려 부드럽게 연출한다.



### LOOK 4. MIX & MATCH

단조로운 립 메이크업이 지루하다면 2가지 립스틱을 블렌딩해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보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18 칠리 토피를 입술을 따라 바르고, #305 카시스를 입술 안쪽에 발라 자연스럽게 섞으면 나만의 새로운 립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헤라 메이크업 픽서, 110ml, 3만2천원.  
헤라 섀도 듀오, #10 얼루어링,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18 칠리 토피, #305 카시스, 각 3.5g, 3만5천원.

**FACE** 헤라 블랙 쿠션을 가볍게 바른 뒤 헤라 메이크업 픽서를 얼굴에 고루 뿌려 베이스 메이크업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10 얼루어링으로 코랄 톤의 그라데이션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18 칠리 토피를 입술 바깥쪽에 바르고, 안쪽에는 #305 카시스를 여러 번 덧발라 자연스러운 투톤 립을 완성한다.

MODEL: KIM JI YOON,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JAYNE PARK (A 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편안하게

처음 화장한 그대로 지을 때까지 완벽하면서도 편안하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같은 일을 실현해줄

진화한 설화수 퍼펙팅 쿠션을 소개한다. 이미 수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은 퍼펙팅 쿠션, 과연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 설화수 퍼펙팅 쿠션

1

### 완벽한 커버력

새로운 설화수 퍼펙팅 쿠션은 설화수의 독자적인 어드밴스드 슬림핏 하이 커버리지 기술을 사용해 바르는 즉시 기미와 잡티를 가려준다. 또한 텍스처가 부드럽고 탄력적이라 잔주름이나 모공까지 섬세하게 커버해 결점 없이 매끈하고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2

### 편안한 지속력

설화수 퍼펙팅 쿠션의 최대 강점은 강력한 보정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에 물들듯 얇고 가볍게 밀착해 하루 종일 피부가 숨을 쉬듯 편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 게다가 커버, 윤기, 보습이 무려 24시간 지속돼 처음 화장한 그대로 지을 때까지 완벽하고 편안하게 유지된다.

3

### 모던 럭셔리 패키지

여성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옷차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퍼펙팅 쿠션의 패키지는 아이보리 컬러의 우아한 측면과 미니멀한 주얼리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골드 컬러의 메탈 소재가 어우러져 모던하고 시크한 인상을 준다.

## 추천 포인트

### POINT 1

피부가 편안한  
럭셔리 커버 쿠션

### POINT 2

커버, 윤기, 보습  
24시간\* 지속

### POINT 3

럭셔리한  
패키지

\* 시험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원  
시험기간: 2021.2.15-18  
시험대상: 2030 한국 여성 31명

“몇 번 터치하지도 않았는데,  
붉은 피부 톤은 물론 모공과  
트러블까지 커버되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시크한 퍼펙팅 쿠션  
패키지 덕분에 파우치 속이  
한층 우아해졌다.”

-<마리골레르>뷰티 에디터 김현민

“완벽히 보정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윤기를 잃지 않아 섬세한 피부결을  
표현하기에 최고의 제품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아영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하루 종일 숨쉬듯  
편안하면서도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킨케어링 쿠션.  
15g×2, 7만5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녹차의 생명력을  
가득 담아 스킨케어와  
동시에 피부를 빠르게  
보습해주는 트리트먼트  
미스트. 200ml, 12만원.

# 초고속 보습 충전

여름에도 피부는 건조하다. 뜨거운 열기와 에어컨 바람으로 수분과 생기를 잃은 피부에 녹차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로 신속하게 수분과 생기를 충전해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 추천 포인트

#### POINT 1

뷰티 녹차, 장원 3호™의  
유효 성분을 그대로

#### POINT 2

급속한 수분 공급 &  
보습

#### POINT 3

자극 없는  
부드러운 분사력

###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①

#### 신선한 녹차 성분이 가득한 녹차 세포수™

대부분이 물인 미스트는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가 그 효과를 좌우한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는 녹차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다원 돌송이차밭에서 재배한 뷰티 녹차, 장원 3호™의 녹차 생잎을 그대로 짜낸 녹차 세포수™를 사용한다. 신선한 유효 성분을 가득 함유해 미스트를 뿌리자마자 피부결이 정돈되는 스킨케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최고 장점.

②

#### 보습 에센스 제형으로 신속한 보습

녹차 세포수™ 외에 녹차씨 오일을 함유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강력한 식물성 보습 성분을 더해 수분 공급과 풍부한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③

#### 안개처럼 부드러운 분사력

미세 오일 입자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분사될 뿐 아니라, 한 번 펌핑해 얼굴 전체에 뿌릴 수 있을 정도로 길고 넓게 분사돼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세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라 속부터 채워지는 촉촉한 보습감이 단연 최고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뿌리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윤기가 살아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아영

“보습력이 탁월해 이 제품을 사용한 뒤로 미스트를 자주 뿌리던 습관이 없어졌을 정도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 장 건강을 위한 필수템

수많은 유산균 제품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세계 최초의 특허받은 녹차 유래 유산균을 포함한 100억 개의 유산균이 장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에 주목할 것.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

1

### 세계 최고의 특허받은 녹차 유래 유산균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의 핵심 성분은 청정 산지 제주에서 재배한 유기농 녹차에서 유래한 유산균.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빌헬름 홀차펠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한 녹차 유래 유산균은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강인한 생존력과 장벽에 착 붙는 탁월한 부착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SCI급 논문에 등재된 성분이다.

2

### 10종의 100억 유산균과 부원료로 유산균 먹이, 대사 산물까지!

인체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5백여 종의 균주 중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 등 10종의 유산균을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엄선해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 안에 담았다. 프로바이오 골드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1일 최대 함량을 충족하는 동시에 균주가 상생하며 증식하기에 충분한 양인 1백억 CFU를 보장하며, 유산균 외 부원료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와 대사 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함께 담아 하루 한 포로 편하게 장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3

### 입에서 사르르 녹는 스노우 파우더 공법™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 특허받은 스노우 파우더 공법™을 사용해 물 없이도 톡톡히 맛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추천 포인트

### POINT 1

세계 최초의 특허받은 녹차 유래 유산균

### POINT 2

식약처 고시 최대 함량인 100억 CFU

### POINT 3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한번에

“장이 편안하니까 피부까지 좋아지는 느낌!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뷰티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복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민하던 장이 편안해졌다.”

-뷰티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시름하거나 텁텁한 파우더 제형의 유산균과 달리 먹자마자 사르르 녹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마리골레르> 뷰티 디렉터 윤취진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골드 청정 산지 제주에서 재배한 녹차에서 분리한 녹차 유래 유산균을 포함한 10종의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장을 편안하게 지켜준다. 1g×60포, 5만5천원.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 레티놀 전문가가 완성한 마스터피스

1997년 첫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레티놀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아이오페. 오랜 시간 혁신을 거듭하며 발전해온 아이오페 레티놀의 최신 버전을 만나보자.

## IOPE RETINOL HISTORY



### 자타 공인 레티놀 전문가

화장품 시장에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의 안티에이징 성분이란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레티놀.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일종으로, 비타민 A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녔다. 레티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 4가지 중 하나이다. 레티놀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안티에이징 성분을 개발할 때 레티놀 함량이 평가 기준이 될 정도. 하지만 레티놀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빛, 산소, 열에 민감하게 반응해 화장품에 처방하는 것은 쉽지만, 피부에 닿기까지의 유효성분을 안정화해 효능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고 적정 농도를 벗어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레티놀을 화장품에 담기 위해서는 레티놀 안정화 기술과 자극 없는 적정 농도를 찾아내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 모든 면에서 아이오페는 믿음직하다. 아모레퍼시픽 레티놀 연구 팀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레티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첫 번째 성과는 1997년에 출시한 아이오페 레티놀 2500. 국내 최초로 순수 레티놀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해 화장품에 담은 이 제품은 레티놀 화장품계의 전설이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꾸준히 연구를 거듭하며 국내 특허출원 25건, 해외 특허출원 22건, SCI 논문 발표 10건과 국제 학술회의 발표 18건, 대외 수상 6건 등 놀라운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오페는 2020년 열 번째 레티놀, 레티놀 포 링클 0.1%, 0.3%를 각각 내놓았다.

### 슈퍼 고함량, 진짜 레티놀

아이오페가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한국인 맞춤형 레티놀 초고함량은 0.1%와 0.3%. 레티놀 포 링클은 순수 레티놀 초고함량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아이오페만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레티놀 성분으로 식약처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차별화된 제품이다. 레티놀 포 링클은 효능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함량을 찾아낸 것은 물론, 캡슐 코팅 없이 순수 레티놀을 항산화 성분으로 총총하게 보호해 레티놀의 파괴를 막아주면서 더 빠른 흡수와 강화된 효능을 지녔다. 또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레티놀의 효능을 피부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아이오페만의 독자적인 3중 차단 용기를 적용했다. 유통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 것도 레티놀 포 링클이 이런 쾌거, 사용한 지 2주 만에 깊은 주름이 완화되는 효능을 보이니 하루하루 늘어나는 주름, 마스크 착용으로 늘어난 모공 등이 고민이라면 레티놀 전문가에게 피부를 맡겨보길.

## IOPE SURVEY RESULT

레티놀 전문 연구 27년,  
아이오페만이 할 수 있는 레티놀 장기 피부 임상

4년간, 레티놀 사용고객의 피부를 꾸준히 연구한 IOPE

오래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사용할수록 정말  
주름이  
개선될까?

오래 사용하면  
자극이 심해지지  
않을까?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레티놀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레티놀  
함량 0.1%의 에센스.  
30ml, 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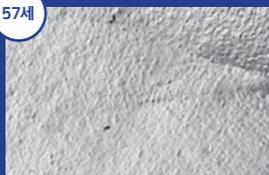
믿고 쓸 수 있어요!

4살 더 나이 들어도 오히려 더 팽팽한 피부로!

53세



57세



\*2012.12.09~2016.12.09 / 40~53세 성인여성(N=52) / (주)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원  
\*TOP1에 해당하는 이미지로 효능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을  
추천하는 이유

### POINT 1

레티놀 성분으로 식약처  
주름개선 기능성 인정

### POINT 2

2주 만에 깊은 주름까지!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

### POINT 3

3단계 산소 차단  
시스템으로 마지막까지  
처음 효과 그대로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레티놀에 익숙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고함량 주름 개선  
에센스. 20ml, 13만원.



## HOW TO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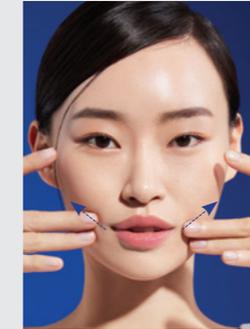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티놀 화장품을 팔뚝 안쪽에 바르거나 아주 소량 얼굴에 발라 적은 시간을 거칠 것.  
그 뒤 다음 가이드에 따라 제품을 사용해보자.

### LESSON 1 초급편

레티놀 초보자라면 다음 가이드에 따라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를 발라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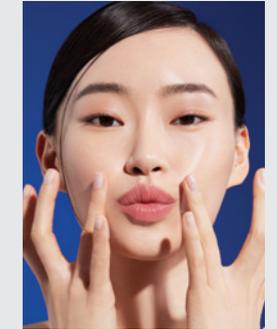
**이마 주름에 바르기**  
제품을 쌀 한 톨 크기만큼 손가락에  
덜어 이마 주름 부위에 바르고  
눈썹 뼈에서 헤어라인 방향으로  
주름을 펴는 느낌으로 바른다. 그 뒤  
지그재그를 그리며 주름 부위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한다.



**입가, 팔자주름에 바르기**  
입술 주변과 팔자주름 부위에  
주름과 90도를 이루도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중지나 약지를 이용해  
피부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바른다.



**눈가 주름에 바르기**  
제품을 쌀 한 톨 크기만큼 손가락에  
덜어 동그란 눈가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고,  
약지로 눈가 근육을 톡톡 두드려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입가, 팔자주름 부풀려 두드리기**  
입가와 팔자주름에 제품을 바르고  
입에 바람을 불어넣은 상태에서  
가볍게 두드린다.

### LESSON 2 고급편

이미 레티놀 화장품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더운 여름에 맞는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면 다음 가이드를 따라 해볼 것.



1. **눈가 주름 교정** 눈가 주름을 보다  
확실하게 완화하고 싶다면 흡수  
단면이 넓고 유지력이 높아지도록  
주름 부위를 팽팽하게 당기면서  
바른다.
2. **화장 문질 방지** 파운데이션이  
주름에 끼어 고민이라면 화장 전  
주름 부위에 얇게 한 번 더 바른다.
3. **마스크 착용 부위에 바르기**  
마스크로 덮이는 일명 나비존에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을 얇게  
바르면 내부 열기로 모공이 넓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자극 줄이기

레티놀 제품을 보다 자극 없이  
사용하고 싶다면 크림을 바른 뒤  
레티놀 포 링클을 바른다. 레티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MODEL: JUNG HOE RIN,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JAYE PARK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 안전한 천연 산화방지제, 토코페롤

가장 많이 연구된 항산화물질 중 하나인 토코페롤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SUNG JIN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져 '인체의 배기가스'라고도 불리는 활성산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중 2~5%가 활성산소로 바뀌는데, 이는 세포와 DNA를 공격해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초래하는 주범이다. 특히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여름철에는 세균성 감염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활성산소가 급증할 위험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항산화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지금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산화방지제인 토코페롤에 주목할 때다.

토코페롤을 알기에 앞서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 비타민 E. 지용성비타민인 비타민 E는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엔올로 분류되고, 각각은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종류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흔하고 활성이 강한 것이 알파토코페롤. 이를 통상적으로 토코페롤이라고 하며, 비타민 E의 대명사 격으로 쓰고 있다. 1936년 허버트 에반스 박사가 소맥 배아유에서 분리한 성분에 토코페롤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1950년대 초반부터는 피부과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토코페롤은 효과가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연구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다. 몸속 세포막을 비롯한 세포 내 여러 막은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비타민 E가 이 불포화지방산의 변질을 막고 활성산소의 공격에 맞서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적혈구가 엉겨 붙는 것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혈관 질환에 관여하고, 당뇨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부에도 주목할 효과를 보인다. 뛰어난 항산화 효과와 보습 기능으로 주름을 완화하고 재생을 돕는 것은 물론, 자외선에 따른 손상을 막고, DNA를 보호하며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킨케어뿐 아니라 메이크업이나 보디 케어 제품에도 널리 쓰인다. 클렌징을 하는 동안 피부 보호막의 밸런스를 맞춰주어 클렌저의 성분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피 관리 성분으로도 좋다. 산화방지 효과로 미생물로 인한 화장품의 손상을 막고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보존제 역할을 하거나, 효과는 좋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성분이 산화되지 않게 막는 데도 쓰인다. 그야말로 팔방미인인 셈이다.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가 인정할 만큼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고 안전해 여기저기 활용되고 폭넓게 사랑받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토코페롤은 해바라기씨, 아몬드, 땅콩, 브라질넛 등 씨앗이나 견과 혹은 아보카도, 시금치, 익힌 브로콜리 등 과일과 채소를 먹어 섭취할 수 있다. 흡수율은 대략 30~50%. 인체 내부의 조절을 통해 80%까지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수용성비타민과 달리 즉시 배출되지 않고 일정 기간 체내에 머물며 효과를 보이는 만큼 많이 섭취하면 위장 장애, 근육 약화, 두통, 만성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피부를 위해서는 적당히 섭취하는 동시에 토코페롤을 함유한 제품을 바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꾸준히 바를 경우 피부가 토코페롤을 흡수하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다음에 바를 때까지 그 효능이 연장되기 때문에 피부 관리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1D**



**1. 헤라 시그니아 루미네소스 래디언스 퍼밍 세럼** 240만 개의 나르시스 식물세포를 함유한 세럼. 노화되어 움치고 탁해진 피부를 정화하고 탄력을 높이며 촉촉하게 감싸 탄력 광채 피부를 선사해준다. 40ml, 14만5천원. **2. 아모레퍼시픽 더 에센셜 크림 플루이드** 여린 녹차잎과 녹차씨 등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보습 장벽을 빠르게 강화하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활력 넘치는 피부로 되돌려준다. 90ml, 12만원. **3.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피부를 탄탄하게 채우고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 탄력을 높이며 주름을 완화하고 피부를 당겨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피부로 개선해준다. 50ml, 20만원.



## 역시, 양유완

여성으로는 드물게 블로잉 기법으로 유리공예 작품을 만드는 작가 양유완. 한계가 없는 상상력으로 이제껏 보지 못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그녀는 자신의 작품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서울 용산의 조용한 주택가. 평범해 보이는 건물 4층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후끈한 열기가 방문객을 먼저 반긴다. 1년 3백65일, 1250°C를 유지하는 가마 부근에 놓인 유리공예 작품들은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저마다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내며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준다. 거대한 가마에서 오는 투박함과 각양각색 유리가 만들어내는 반짝임이 공존하는 이곳은 양유완 작가의 작업실이다.

"1년 내내 가마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엄청 더워요. 근처에서 촬영할 일이 있거나 지나다 생각났다면 들르는 지인들도 꽤 많은데, 한여름이면 워낙 더워서 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실이라고 하기엔 꽤 편안하고, 집이라고 하기엔 꽤 오픈된 이곳은 늘 양유완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약속 시간이 매매하게 남았다고, 근처에서 진행한 촬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고, 선물 받은 와인이 남았다고... 이곳을 찾는 이유도 다양하다. 그만큼 이곳과 그녀가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일 터. 싱크대와 테이블이 있는 다 이닝 룸에는 그녀가 만든 주전자, 컵, 그릇, 꽃병 따위가 가득하고, 보기만 해도 예쁜 이 작품들

은 작업실을 찾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얻는다.

"원래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어요. 평소 자동차를 좋아해서 졸업 전시를 위해 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헤드라이트를 만들어보려 했는데, 조명 디자인 관련 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만들어보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조명에 쓰이는 유리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이후 유리 관련 수업을 듣다 보니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을 유리공예로 바꾼 뒤 1년간 더 공부했어요." 어찌 보면 우연이고, 어찌 보면 필연이라 할 수 있는 계기로 그녀는 정답 없이 만들면 만드는 대로 결과물이 도출되는 유리공예에 매료되었다. 특히 블로잉 작업을 처음 접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 뜨거운 가마 앞에서 그 열기보다 강한 열정으로 자유롭게 작업하는 블로어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환하게 웃으면서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때부터 유리공예의 꽃이라 불리는 블로잉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유리공예를 시작한 첫날 만든 것은 유리구슬. 중심이 맞지 않고 모양도 뻘뻘뻘 했지만, 그녀는 가장 집중하고 진심을 담아 만든 작업물이라고 말한다. 이 구슬은 지금도 부모님 댁에 간직되어 있다.



@absolute\_mowani

양유완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다 우연찮게 유리라는 소재에 빠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리공예 작품을 만드는 중. 비정형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그녀의 작품은 '모와니 글라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편집숍에서 판매되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졸업 작품을 준비하며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유리가 깨끗한 성질을 지닌 도자라는 점에 착안해 우리나라의 할, 향아리, 도자의 모형과 유리를 결합한 '연(Tied the Knot)' 시리즈를 선보인 것. 하단은 도자고 상단은 유리인 이 작품은 졸업 전시장을 찾은 호주 정부 관계자의 추천으로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도 출품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런던의 민트 아트 갤러리와 사치 갤러리에 전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속한 환경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더 희소 가치가 있는 작업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양유완의 작품 중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팔린 것은 작은 물잔. 판매할 생각 없이 만든 물잔에 관심을 보이며 선뜻 구매할 고객은 이제 그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집 한편 장식장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유완의 작품을, 추후 전시를 열게 되면 기꺼이 빌려주겠노라고, 이만큼 투자했으니 꼭 성공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고마운 사람이다. 양유완의 작품

이 이렇듯 사랑받는 데에는 자유로운 형태가 큰 몫을 한다. "처음 유리공예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형화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작업하다 보니 '왜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투명과 불투명, 전통과 모던, 동양과 서양 등 이질적인 요소를 접목해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녀의 작품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과 달리 '유일성'을 지닌다. 둥글고 투박한 형태 속에 기포를 품은 유리 플레이트, 매끈한 와인 글라스의 발(foot) 부분에 둥근 유리 구슬을 붙인 작품 등은 그녀만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언젠가 2세가 생기면, 특히 딸이 태어난다면 이 일을 물려주고 싶을 정도다. 꽤 힘이 드는 작업이라 한국에서는 블로어의 대다수가 남성이지만,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담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만큼 딸도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 속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작품들이 있다. 햇살 아래,

혹은 비 내리는 날 창가에 놓인 작품을 보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에게 유리공예는 연인 같기도 하고, 애뜻한 사람 같기도 하다. 뜨거울 때에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식고 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유리공예를 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법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뷰 당시, 그녀는 7월에 열릴 3개의 전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중이었다. 손각을 다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는 둥근 형태를 띠면서도 단단해 중심을 잃지 않는 작품과 꼭 닮았다. "제 이름 앞에 붙이고 싶은 수식어요? '역시' 양유완이요.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 수식어지만, 그만큼 단단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면서요. 내년에는 가구를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유리 의자도 만들 거예요." **Q**



**TIP**

**양유완이 추천하는 여름 유리 소품 3**



**샴페인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샴페인을 유리 샴페인잔에 담아 마시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포가 더 풍성해 보여 청량감이 극대화된다. 샴페인을 마시지 않을 때에는 화병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화병**

햇살 아래 놓은 화병 주변으로 빛에 반사돼 나타나는 물결같은 그림자를 보면 누구도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듯.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 때문에 바다 물결처럼 일렁이는 모습을 보면 황홀해 절로 감탄이 나올 것이다.



**조명**

빛을 뿜게 하는 플라스틱 조명에 비해 빛을 고스란히 발산하는 유리 조명은 공간을 더욱 밝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침대 머리맡이나 거실 테이블 위에 유리 스탠드 조명 하나만 놓아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터.

STYLING: LEE KYUNG WON



# 활력 충전을 위한 여름 생활 백서

심신이 지치기 쉬운 여름, 축 늘어져 있는 대신 다음 여름 생활 수칙을 따라보자. 무더위 속 한줄기 시원한 산들바람처럼 상쾌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editor CHOI HYANG JIN

## 여름 생활 수칙 1 미지근한 물 마시기

더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물이나 아이스커피를 연신 들이켜고 있다면 몸이 통통 붓지 않았는지 살펴볼 것.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수분이 혈액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장이나 세포 사이에 고여 부종을 일으킨다. 아침에 일어나 36℃ 정도의 상온에 보관한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절대 수분량이 줄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세포 속 수분량이 늘어 생기를 유지할 수 있다. 미지근한 물을 하루 최소 2L 이상 마시도록 하자. 부기가 빠져 몸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생기 넘치는 피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여름 생활 수칙 2 숙면 취하기

잠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 7시간 이하로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기 힘들고 실수가 잦아진다. 한마디로 멍청해지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잘 걸리고, 통증에 민감해져 아픔을 많이 느끼게 된다. 또 식이 조절 역할을 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 하루 평균 300kcal 이상을 더 섭취하게 되어 살이 찐다. 더욱 무서운 것은 평균 수명 시간인 7시간 보다 적게 자거나 많이 잘 경우, 6년 후 사망률이 1.3배나 높다고 한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으로 활기차게 오래 살고 싶다면 늦어도 밤 11시~새벽 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어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자. 열대야 때문에 잠들기 힘들다면 초저녁에 30분 정도 운동을 한 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 여름 생활 수칙 3 하루 30분 이상 걷기

하루에 30분가량 걸으면 지방과 탄수화물이 1:1의 비율로 동일하게 소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더하면 코어 근력까지 붙으니 일석이조! 30세 이후부터 근육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45세 이후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신체 균형이 무너져 활력을 잃게 된다. 평소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해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름 생활 수칙 4 많이 웃기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등의 분비가 감소하고, 장수 호르몬인 엔도르핀의 분비가 왕성해진다. 또 엔케팔린도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모르핀보다 3백 배 강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PHOTOGRAPHY: WWW.GETTYIMAGEBANK.COM

동안 에어로빅이나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 것만큼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며 체내 면역 세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불쾌지수가 높아 짜증만 나더라도 잠시 웃는 척이라도 해보자.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웃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며 기분은 한층 좋아지고 활기가 생길 것이다.

## 여름 생활 수칙 5 유산균을 먹어라

꼭 여름에만 해당하는 건강 수칙은 아니지만, 기력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 면역력까지 떨어지면 몸의 활력과 생기를 결정짓는 컨디션이 흐트러지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므로 장 건강 관리가 필수이다. 유산균이라 불리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속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의 활성을 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부원료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대사 산물(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틱스 골드 같은 스마트한 제품도 있으니 참고할 것.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틱스 골드  
1g×60포, 5만5천원.

## 여름 생활 수칙 6 탄력을 관리하라

피부 온도가 상승하여 쉽게 건조해지거나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모공이 커지고 늘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화장품과 열을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하는 이유다. 흡수가 빠른 약성형 저분자 콜라겐 앰플을 매일 챙겨 먹으면 피부 보습 뿐 아니라 탄력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앰플 골드  
25ml×30앰플, 11만원.

## 여름 생활 수칙 7 등을 관리하자

스트레스 등으로 멍치거나 뻣뻣해지기 쉬운 등. 등은 몸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이 지나는 신경의 통로이자 몸의 에너지 흐름을 주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뻣뻣하게 굳은 등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만 매일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 여름 생활 수칙 8 체온을 높여라

몸무게가 늘면 행동이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 체중이 더 느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여름철 과도한 냉방으로 체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며 살이 찌기 쉽다는 점. 체온을 1℃ 올리는 것만으로 기초대사율이 15% 가까이 올라가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찬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고 싶다면 바이탈뷰티 슬리머디엑스처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 도움을 받아볼 것.



바이탈뷰티 슬리머디엑스  
25ml×30앰플, 9만원.

#럭셔리커버쿠션  
#모공커버쿠션  
#세미매트쿠션

# 생생한 제품 평가

설화수 퍼펙팅 쿠션을 체험해 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 @MOOONDDONG

설화수 쿠션은 처음인데 바로 제 인생템으로 등록했어요. 여름 쿠션, 아직 정착 못 하셨다면 꼭 써보세요. 케이스도 아주 고급스러운 데다 밀착력, 커버력, 매끈매끈해 보이는 피부 표현까지 정말 만족합니다.



### @shinysun90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일단 반했어요. 발랐을 때 촉촉하고 모공이 커버되는 건 물론 피부 속광이 고급스럽게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밀착력이 우수해서 마스크에 덜 묻어나고, 특히 지속력이 높아서 메이크업을 수정하지 않아도 저녁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테스트해보고 너무 좋아서 얼마한데도 선물했어요.



### @yunwid0m

설화수 퍼펙팅 쿠션은 여러 번 써봤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면서 커버력도 지속력도 더 좋아졌어요. 피부도 더 예뻐 보여서 만족해요. 쿠션 유목민이라면 새로워진 퍼펙팅 쿠션 사용해보는 게 어떨실지.



### @jn\_day

피부가 건성인데 퍼펙팅 쿠션 쓰면서 만족해 몇 통을 썼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촉촉하고 끈직한 텍스처에 산뜻하게 마무리돼 여름에 완전 찰떡 쿠션이에요.



### @chocobi8011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촉촉하고 얇게 발리면서 모공까지 감춰주는데 들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나 싶은 거 있죠. 아침에 가볍게 바르고 나왔는데 오후까지 화장이 망가지지 않고 피부가 좋아 보여서 놀랐어요. 케이스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설화수가 설화수 했네요!



### @luv\_da\_ae

새롭게 리뉴얼된 퍼펙팅 쿠션. 촉촉하고 얇게 발려 광택감 있는 피부로 표현되고, 하루 종일 무너지는 일 없이 지속력도 감이에요.

◀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하루 종일 피부가 숨 쉬듯 편안하면서도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킨케어링 쿠션. 15g×2, 7만5천원.



### @\_05x29

얇게 펴발려져서 가볍지만 커버력은 탄탄하게 마치 도자기 피부처럼 예쁜 스킨을 연출해주는 세미 매트 쿠션. 요즘은 날씨도 덥고 마스크도 써야해서 답답한데 퍼펙팅 쿠션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너무 좋아요.



### @happening101

우아하고 세련미 넘치는 데일리 룩에서 영감 받은 설화수 퍼펙팅 쿠션. 모공까지 매끈하게 커버해준다.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송하면서도 촉촉하게 정돈된 기분. 지속력까지 좋은 녀석, 역시 설화수.



### @mozzihyo

커버력뿐 아니라 지속력도 뛰어나고 케이스도 고급스러워요. 밀착력 있게 잘 발리고 매끈하면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세미 매트 타입! 여름철 마스크에 메이크업이 묻어날까 봐 걱정하는 분들~ 설화수 퍼펙팅 쿠션을 추천합니다.



### @lish\_beauty\_

역시! 여태까지 써본 쿠션과 다르게 스킨케어 하듯 끈적하고 촉촉하게 발리고 고급스럽게 마무리돼요. 은은한 세미매트 타입이라 삶은 달걀 같은 피부가 딱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깔끔한 모공 커버와 건강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 여름 쿠션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 스테이1미터

거실의 통유리 창 너머로 멋진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독채 펜션 '스테이1미터'. 이곳의 이름은 땅으로부터 1m 높이에 지어져 붙인 것으로 일상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쉬고 싶을 때 찾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 긴 타원형 건물 앞마당에는 갈대 정원을 향해 길게 뻗은 야외 수영장이 있다.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심을 각각 0.5m, 1.4m로 분리해 온 가족이 하나의 풀 안에서 수영을 즐기기에 좋다.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한다면 침실과 연결된 노천탕을 이용해보자.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하는 수영장과 달리 지붕은 뚫린 채 사방이 막혀 있어 색다른 분위기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주소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1길 89-15 수영장 이용 7~9월, 이용시간 제한 없음  
비용 1박 40만~60만원 문의 0504-0904-2309



### 빌라드 남해

붉은 벽돌로 된 이국적인 외관이 눈길을 끄는 '빌라드 남해'. 전 객실에 야외 히노키탕이 딸려 있고, 방은 복층과 단층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드넓은 인피니티 풀은 풀빌라 객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넓은 테라스에 풀장, 히노키 욕조, 선베드가 있어 6명이 동시에 이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남해 바다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물놀이를 즐기는 투숙객이 많다.

주소 경남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21-42  
수영장 이용 3~12월, 15:00~21:00  
비용 1박 20만~70만원 문의 010-2125-3733



# 국내 풀빌라 여행지 5

남해부터 제주까지, 산과 바다를 곁에 두고 수영장을 품은 숙소를 찾았다.

editor GO YEONG JIN



### 엑시트 풀빌라

두 채의 건물에 6개의 객실을 갖춘 '엑시트 풀빌라'는 방마다 널찍한 온수 풀이 딸려 있다. 함께 준비된 제트 스파는 이곳의 또 다른 인기 요인. 모든 객실에서 동해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출 감상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3층의 루프톱 풀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주소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778  
수영장 이용 사계절 내내, 이용시간 제한 없음  
비용 1박 40만~1백만원 문의 0507-1355-6066



### 한산 마리나 호텔 & 리조트

제트스키를 비롯한 각종 수상 레저와 함께 럭셔리 요트 투어까지 즐길 수 있는 물 위에 지은 리조트다. 여기에 이국적인 조경이 더해져 마치 동남아시아 휴양지에 온 듯하다. 중앙의 넓은 수영장은 이곳의 자랑. 테라스와 수영장이 연결된 가든 달럭스 객실에서는 야외 풀장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 아래쪽을 향해 들어가면 수심이 깊고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수영장도 있다. 리조트 뒤편 해안 소나무 산책로는 이곳의 또 다른 명소. 리조트에서 자전거를 빌려 라이딩도 즐길 수 있다.

주소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치이해안길 820  
수영장 이용 3~11월, 09:00~21:00  
비용 1박 20만~1백20만원 문의 055-648-3332

PHOTOGRAPHY: LEE SEOK YEONG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아름다움은 자란다'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애 모든 순간에 본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여러분에게 에이미 페라 파울러 박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의 등장인물인 그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신경생리학자이고,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섹시한 곳은 두뇌라고 믿습니다. 전공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본인의 신념에 따라 그런 전공을 택한 건지는 모르겠군요.

어느 날 에이미는 친구 자녀들 때문에 세균성 결막염에 걸립니다. 결핵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귀는 에이미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지요. 천만다행으로 연인은 여행을 떠나 있던 참인데, 에이미는 그와 화상 채팅을 할 때 비교적 멀쩡한 쪽 눈만 보이도록 옆으로 돌아앉은 채 화면을 즐겨봅니다. 왜 화면을 똑바로 보지 않느냐는 연인의 물음에 에이미는 거짓말을 합니다. "주변시\*를 좀 키워보려고요."(\*시야 주변부에 대한 시력) 연인은 걱정스러워하며 다시 묻습니다. "아, 또 여성 잡지 보고 속상해진 거예요? 모델들은 시력이 좋아 보이게 보정한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요."(<빅뱅 이론> S11.e23)

에이미와 연인의 대화에서 언급된 '시력'을 무엇으로든 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겠지요. 정수리가 꼭 차 보이게, 머릿결에 윤기가 돌게, 눈썹의 각이 정확해 보이게, 속눈

# 아름다움의 이해와 실제

작가 박서련이 <향장>에 보내온 아름다움에 대한 에세이.

흔히 접하는 시트콤에서 묘사하는 여성이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에서부터 그녀의 고찰이 시작된다.

editor PARK SEO RYEON

썩은 길고 풍성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발끝까지 계속한 다음에 다시 머리끝까지 되짚어 올라갈 수 있지요. 화보 촬영의 미적 기준을 따르자면 그 누구의 신체 어느 부위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고요.

위의 대화가 제게 준 충격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이 드라마의 장르는 시추에이션 코미디이기 때문에 연인의 말 바로 다음에 청중의 웃음소리가 효과음으로 삽입되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에이미는 인간의 신체 부위 가운데 두뇌를, 그중에서도 인지능력이 우수한 두뇌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뇌가 얼마나 좋으면 전공과 직업조차도 뇌과학 분야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심으로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런 인물조차도 때로 '또 여성 잡지를 보고 속상해'하곤 한다는 것. 자기가 사회적 기준에서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미인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습관을 고치기는 어렵다는 것. 즉 에이미마저도 그렇단 말인가, 하는 충격이었지요.

여기에 이르러,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사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만큼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도 드물고, 사람마다 다양한 미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말고 다른 말로 치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품어왔고, 이 덕분에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의 비밀이 해석되어왔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번식에 유리해 보이는 외형이 선호되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제게는 이런 설명들도 모두 불충분하게 느껴집니다.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아름답다고 여긴다면 왜 두꺼운 허리는 아름답지 않은가요? 두꺼운 허리는 생존에 유리하고 번식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머리숱이 많은 것이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면 왜 팔다리에 털이 많은 사람에게 제모를 권하는 걸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신체 다른 부위에도 모량이 풍부한데 말이지요. 무엇보다 지금이 선사시대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에 여전히 가치를 두는 걸까요? 혹시 그냥 욕망하기 쉬운 것들을 아주 오래된 핑계로 계속 욕망하려는 게으름의 발로가 아닌가요? 제 생각에 아름다움의 기초에는 다음 두 가지의 합이 있습니다: 매혹하기와 욕망되기. 무언가가 많은 사람을 매혹할 때, 또 많은 사람이 어

떤 대상을 욕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눈은 커야 하고 얼굴은 작아야 하고 가슴은 커야 하고 허리는 가늘어야 한다는 등 통일되지 않은 다종의 잣대를 거르고 나면 매혹과 욕망, 두 가지가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면 마약이나 독재도 아름다운 것으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원래 아름다움의 기준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들만을 매혹과 욕망의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가지 기준, 매혹과 욕망이 상호 보완되는 동시에 매우 상대적인 속성이라는 점이 놀랍지 않은가요? 매혹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동적이지요. 우리는 매혹할 때에 주체가 되고, 욕망될 때에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놀랍게도 매혹하는 아름다움은 대체로 정서적인 면에서 발견됩니다. 매혹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름답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이해해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해의 잉여들로 된 정서의 작용이라고 정의해보겠습니다. 가령 어린 아이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보고 귀엽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대상이 다른 대상을 귀엽다고 여기는 것은 제 이해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말하자면 이런 순간들을 저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에이미 페라 파울러 박사에게 돌아가봅시다. 에이미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재원이지만 현대 미국 여성의 미적 기준에는 거의 부합하지 않는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한 가정교육을 받은 탓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쇄골과 손목뼈와 복숭아뼈 안쪽은 결코 노출하지 않는 옷차림을 고수하지요. 에이미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패션 감각이 신통치 않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뇌야말로 가장 섹시한 신체 부위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에이미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연인이 언급했듯, 가끔 여성 잡지에 실린 모델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 또한 에이미가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일부겠지요. 그런데 그런 에이미는 극 중 가장 연애 신경이 둔한 사람을 매혹하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좋지 못한 연인과 바깥세상을 연결하는 이해의 창구가 되지요. '아름다움이란 연애를 가능하게 하는 속성이다'라는 식으로 한정하

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에이미의 연인에게 에이미는 세상 유일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 에이미 페라 파울러 박사가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능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계속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피부색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갖출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눈매를 교정하고 눈가 주름을 없앨 수는 있지만 눈빛을 시술로 바꿀 수는 없지요. 치아를 교정하고 입술을 부풀리고 사진에 나온 처진 입꼬리를 보정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사려 깊은 언어 습관을 혀에 인위적으로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태도 변화만으로,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마음의 재편만으로 그 전에는 없거나 미미했던 아름다움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요.

더욱 멋진 점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갈고닦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움만큼, 혹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름다움을 식별하는 감각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보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스스로없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질시 없이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장황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아름다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며, 지혜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낡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제가 쓰는 것보다 여러분으로부터 발화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



박서련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체공녀 강주홍>, <마르타의 일>, <더 설리 클럽>, 소설집 <호르몬이 그랬어> 등이 있다. 문학 플랫폼 대전([www.d5n25n.com](http://www.d5n25n.com)) 운영진.



#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7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1.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샤워 젤**  
샤워를 많이 하는 계절. 향기롭고 상쾌한 여름을 위한 헤라의 향기 나는 샤워 젤. 270ml, 4만7천원.

**2.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하루 종일 숨 쉬듯 편안하면서도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킨케어링 쿠션. 15g×2, 7만5천원.

**3. 바이탈뷰티 슬리머디엑스**  
체지방 분해 대사를 촉진해 복부 지방을 포함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25ml×30앰플, 9만원.

**4.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18 칠리 토피/ #305 카시스**  
선명하게 발색하는 동시에 유리구슬같은 윤기를 더해주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의 새로운 컬러. #305 카시스는 여성스러운 핑크빛. #218 칠리 토피는 코랄 레드 컬러로 둘 다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 각각 3.5g, 3만7천원.

**5.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수딩 젤 크림**  
피부 온도를 -7.8도 낮춰주고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쿨 보습 크림. 100ml, 5만9천원.

**6.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  
피지 분비, 모공, 건조, 피부 트러블 등 피부 문제를 해결하고 지친 피부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남성용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듀오. 각각 125ml, 4만2천원, 110ml, 3만8천원.



HERA  
H O M M E

ENERGY  
REBOOTING

